

# 안효선 국어 연구

지안공무원 안효선  
現 지안에듀 국어 전임  
現 빅모의고사 해설 위원

## 【개 강】

기본 이론반 개강  
7월 6일 (월) 지안공무원학원 2관 개강  
매주 월요일, 수요일 오전 10시 ~ 오후 1시

- 이론과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
- 개념을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도록 개별 관리
- 문제 출제 > 정답 제출 > 피드백

문 1. 정답 ①  
사례는 '방향 반의어'를 말한다.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이며, ①은 한쪽을 부정하면 다른 한쪽이 긍정이 된다.

문 2. 정답 ②  
사회자는 토론을 이끌어 나간다. 토론이 시작할 때는 토론의 방향과 유의점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.

문 3. ①  
1960년대 이후, 1970년대 말, 1987년 이후 숲이 파괴된 수치를 이용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.

문 4. 정답 ④  
'인사말'은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.  
오답: 노래말(X) → 노랫말, 순대국 → 순댓국, 하교길(X) → 하곶길

**적중**  
모의고사 반에서 수업했던 단어가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. 인사말과 예사말은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대표적 단어이며, '국'과 '길'은 앞의 단어와 결합할 때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단어로 '순댓국', '하곶길', '등곶길'은 연습했습니다.

문 5. ②  
(가)는 반영론적 관점이며, 시대 상황을 언급한 것은 ②번밖에 없다.

**적중**  
문학 특강 수업에서 박목월의 '나그네' 정도는 정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과 박목월은 청록파 중 한 사람으로 민요적 율격과 향토성이 드러나는 시를 지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.

문 6. ①  
글에서 독서란 삼독해야 하며, 삼독은 글 자체를 읽고 그 글을 쓴 작가의 시대를 바탕으로 읽고 최종적으로는 그 글을 자기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.

문 7. ②  
'옛'이 관형사이므로 뒤의 말과 띄어 써야 한다.

오답 해설  
① '그중'은 하나의 단어이다.  
③ 숫자 '한'의 의미가 아닌 시도해보다라는 의미로 붙여 써야 한다.  
④ 굴의 안이라는 뜻의 '굴속'도 붙여 써야 한다.

문 8. ③  
③ 축약이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개수가 변동 전보다 하나 줄어들었다.  
일어난 음운 변동은 축약과 된소리되기이다. 참고로 'ㅍ'은 하나의 음운이다.

오답 해설  
① ㄴ첨가 이후에 유음화가 일어난다.  
② 조음 위치 동화에는 연구개음화와 양순음화가 있다.  
④ 자음군 단순화로 '흙먼지'가 [흑먼지]가 된 이후 비음화가 일어나 [흥먼지]가 되었다.

문 9. ①  
'먼저 접수된'의 관형사형 어미가 과거형 어미이므로 '-었-'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.

문 10. ②

술과 국의 맛이 좋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대구법이 쓰였다.

오답 해설

① 수업 때 연습한 이황의 시조가 그대로 나왔으며 연쇄법을 이용하여 시를 전개하고 있다.

③ 반복법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한다.

④ 권섭의 시조로 세상에 환멸감을 쓴웃음으로 드러냈다.

문 11. ③

‘마음이나 의식’을 부정물인 ‘옷’이 가질 수 없다.

문 12. ①

진행자는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지만, 상대의 의견을 비판하지는 않았다.

오답 해설

② “그렇군요~ 같은데요”에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제시하였다.

③ 시행상의 보완책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등 추가적 정보를 요구한다.

④ 진행자는 교통사고가 심각한지 그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를 홍 교수에게 질문하였다.

문 13. ④

진보와 진화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가 된다.

문 14. ③

유 소사의 질문에 “어지 부부라고 간쟁치 았으리이까?”라고 대답하면서 부부간에도 서로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. 다만, 남편이 부인의 말에 치중하다보면 해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

오답 해설

① 사씨의 어머니는 딸이 시집가서 남편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 했다.

② 사씨는 홀어머니 밑에서 사랑받고 자라서, 자신이 부족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.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배

우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.

④ 효성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.

문 15. ④

‘소리의 여운’은 갈등 해소의 기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안의 분위기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.

문 16. ②

① “특히 시란~ 못했다”에서 알 수 있다.

③ “수백 마디의 ~ 했다”에서 알 수 있다.

④ 시의 자질 중 은유를 영화 <일 포스티노> 속 은유를 통해 알 수 있다.

문 17. ③

① 화조월석: 꽃이 핀 아침과 달 밝은 저녁.

경치(景致)가 가장 좋은 때

② 위편삼절: 책을 엮은 것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으로 다독을 의미함.

③ 천의무봉: 선녀의 옷에는 바느질한 자리가 없다는 뜻으로, 시나 문장이 기교를 부린 흔적 없이 자연스러움.

④ 막무가내: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음

문 18. ①

‘유명세’는 유명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 유명해져서 당하는 불편함을 말하므로 ‘有名稅’로 써야 한다.

문 19. ④

“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성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”라고 하였다.

문 20. ③

글에서 “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”, “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이다”라고 하였다.

카카오톡에서 ‘안효선국어’를 검색하시면, 자세한 해설과 해설 영상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